

‘인간은 잠재적인 도덕적 동물’ 강조하는 진화심리학 저서들의 세계

진화심리학을 다룬 책들이 시나브로 출간되고 있다. 진화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신생학문이다.

진화론의 중심개념은 자연선택이다. 자연선택이론은 적자생존으로 규정된다. 적자는 냉혹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 그들의 유리한 형질을 자신의 집단 속으로 퍼뜨리고 부적자는 도태되는 것이 자연선택이다. 생물이 생존경쟁에서 이기려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적응이란 자연선택이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생물의 기능 중에서 효과적인 부분만을 선택하여 진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사람의 마음을 이러한 적응의 산물로 간주하는 학문이 진화심리학이다. 말하자면 진화생물학과 인지심리학이 결합된 학제간 연구이다. 진화심리학은 1992년 심리학자인 레다 코스미데스와 그녀의 남편인 인류학자 존 투비가 엮은 《적응하는 마음 *The Adapted Mind*》의 출간을 계기로 하나의 독립된 연구 분야가 되었다.

진화심리학 입문서로는 2001년 출간된 《진화심리학》(김영사)이 돋보인다.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책 말고는 진화심리학의 이모저모를 소개한 개론서가 나와 있지 않다. 그림을 곁들인 문고판 형태의 책이지만 진화심리학의 핵심 개념을 거의 완벽하게 풀이하고 있다. 특히 진화심리학에 대한 비판을 다룬 대목(138~170쪽)이 흥미롭다.

진화심리학으로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인물은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인 스티븐 핑커이다. 1994년 펴낸 《언어 본능》(그린비)으로 명성을 얻은 그는 ‘언어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언어를 본능이라 보는 까닭은, 첫째 어린 시절에 의식적인 노력이나 교육 없이 자발적으로 발달되며, 둘째 밑바탕에 놓인 논리를 몰라도 사용할 수 있고, 셋째 모든 사람에게

질적으로 동일하며, 넷째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일반적인 능력과 구별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언어에 대한 기존의 견해, 즉 언어는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 발명된 문화의 산물이며 교육에 의해 아이들에게 전수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언어 역시 다른 신체기관처럼 자연선택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어떤 의미에서 핑커를 비롯한 진화심리학자들은 노엄 촘스키의 후계자들인 셈이다. 1957년 펴낸 《변형 생성 문법의 이론》(범한서적)에서 인간의 언어가 창조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언어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촘스키는 가장 영리한 원숭이가 말을 할 수 없지만 가장 우둔한 사람도 말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문장을 얼마든지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까닭은 인간이면 누구나 언어 능력을 타고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촘스키는 매사추세츠 공대의 동료인 핑커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언어가 두뇌 진화과정의 우연한 부산물일 따름이며, 결코 적응의 산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핑커가 2002년 펴낸 화제작 《빈 서판》(사이언스북스)이 최근 출간되었다.

진화심리학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마음이 보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예외는 불가피하게 인정하고 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남녀의 성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선택이 남녀의 마음을 다르게 구성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짝짓기에서 여성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진화심리학 이론으로 인간의 짝짓기 행위를 분석한 대표적인 인물은 미국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부스이다. 그는 6대륙 37개

문화권에 속한 1만여 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5년간 인간의 성의식을 연구한 결과를 1994년 《욕망의 진화》(백년도서)로 펴냈다. 그는 오늘날 남녀의 성전략은 수렵 채집하던 인류의 조상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화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책의 말미에서 “우리의 짝짓기 메커니즘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를 말해주는 ‘살아 있는 화석’ 이다”(383쪽)라고 표현했다. 다시 말해 짝짓기 과정에서 남녀가 부딪혀야 했던 적응의 문제가 달랐기 때문에 오늘날 남녀가 다른 성전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스에 따르면, 생식능력의 측면에서 남자들은 단기간에 여러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지만 여자들은 한 해에 오로지 한 명의 아이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남자들은 혼외정사에 적극적인 반면에 여자들은 짝을 선택하는 조건이 까다롭다. 따라서 짝을 고를 때 남자들은 육체적으로 젊고 매력적인 여자를 선호하는 반면 여자들은 상대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중시한다.

남녀간의 상이한 짝짓기 전략이 진화과정에서 형성되어 무의식적인 심리구조로 굳어졌다는 부스의 주장은 페미니스트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기에 안성맞춤이다.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은 남녀의 성 역할이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축된다고 보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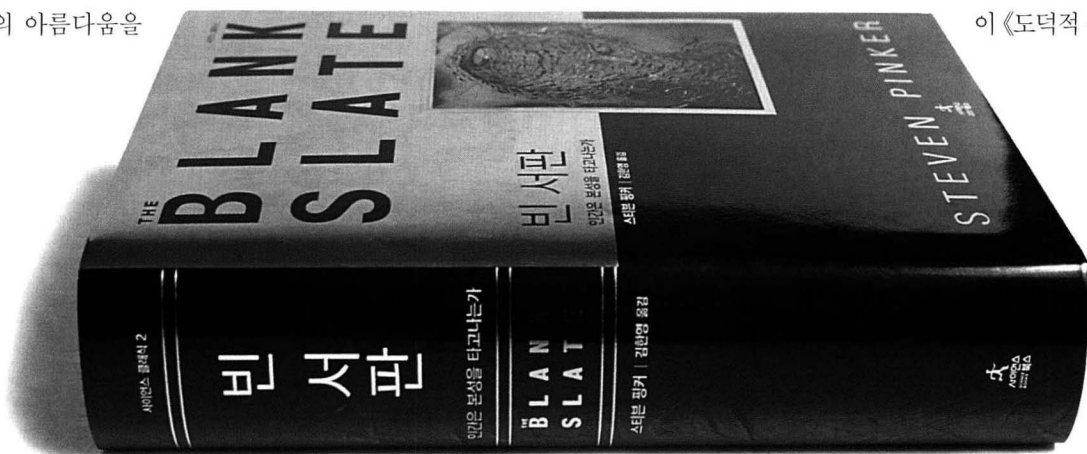
여성의 아름다움을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저서도 발표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낸시 에코프는 1999년 여성미의 본질을 분석한 《미-가장 예쁜 유전자만 살아남는다》(살림)를 펴냈다. 원제는 ‘미인생존 Survival of the Prettiest’. 적자생존에 빗대어 만든 말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생존경쟁에서 유리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에코프는 아름다움에 민감한 마음의 모듈에 의해 좌우대칭적인 몸매, 부드러운 피부,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소유한 여자가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는 배우자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짝짓기 경쟁에서 가장 유리하므로 여성미가 진화되었다는 것이다. 에코프에 따르면, 여성미는 결코 남성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구성물일 수 없으며 여성 자신을 위해 진화된 적응의 산물이다.

어쨌든 진화심리학에서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한 행동 특성들, 이를테면 질투심, 도덕적 감수성, 기만행위, 이타주의 등이 자연선택에 의한 적응의 산물임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과학저술가인 로버트 라이트는 1994년 이러한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도덕적 동물》(사이언스북스)을 펴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가장 유의할 점은 원전과 번역판의 발행시기이다. 원전은 1994년 《언어본능》이나 《욕망의 진화》와 같은 시기에 나왔으나 국내에는 1995년 《욕망의 진화》, 1998년 《언어본능》, 2003년 《도덕적 동물》의 순서로 소개되었다. 이와 같

이 《도덕적 동물》이 다른 책들



《빈 서판》 스티븐 핑커 지음 | 김한영 옮김 | 사이언스북스 | 1,902쪽 | 값 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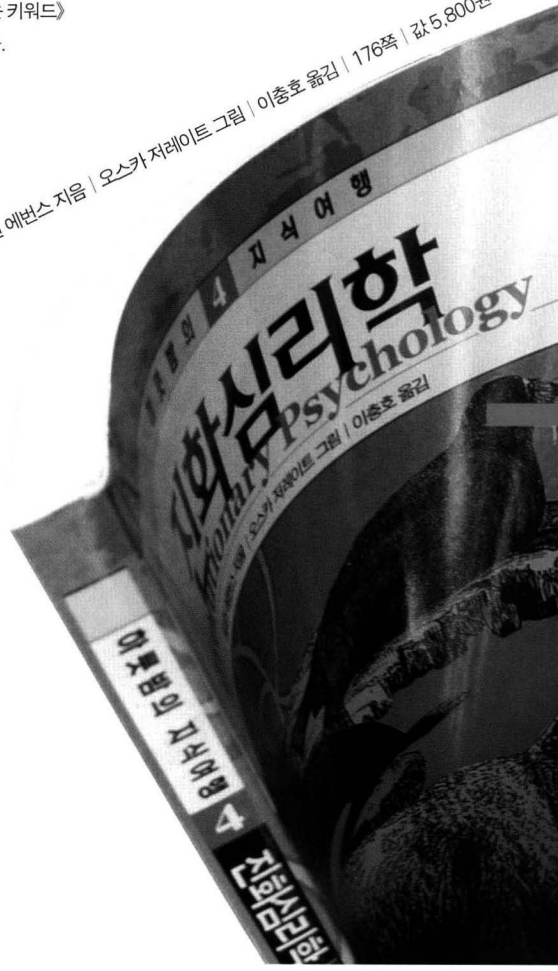


이 글을 쓴 이인식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부터 정보통신업계에서 일했다.
1992년 월간 <정보기술> 발행인을 역임한 뒤
1995년부터 과학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동아일보> <한겨레> <주간동아>

<월간조선> <과학동아> 등 여러 매체에
고정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테크 혁명> <사람과 컴퓨터>
<미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성이란 무엇인가>
<제2의 창세기> <21세기를 지배하는 키워드>
<아주 특별한 과학에세이> 등이 있다.

《진화심리학》 딜런 에번스 지음 | 오스카 저레이트 그림 | 이충호 옮김 | 176쪽 | 값 5,800원



보다 한참 늦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최신 이론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일 것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없지 않다. 요컨대 이 책은 진화심리학의 초창기 이론을 집대성한 입문서일 따름이다. 단지 다른 두 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차례에서 보듯이 이 책은 섹스와 사랑, 사회적 유대, 기만행위, 도덕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654쪽에 달하는 방대한 번역서를 읽는 동안 나는 여러 차례 이 책이 왜 진화심리학 도서로 분류되는지 궁금했다. 진화생물학 책에서 익히 보아온 주제와 이론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진화심리학 특유의 접근방법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아 신선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는 게 솔직한 독후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의 '진화윤리학' 과 17장의 '도덕적 유전자' 는 여느 진화생물학 책에서 보기 힘든 내용인 것 같다. 가령 "우리는 잠재적으로 도덕적 동물이지만 자연적으로 도덕적 동물인 것은 아니다. 도덕적인 동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도덕적 동물이 아닌지를 깨달아야만 한다" (502쪽)와 같은 대목은 이 책이 아니면 도달할 수 없는 결론인 것 같다.

진화심리학은 생물학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 따라 행동유전학의 닭은꼴 또는 사회생물학의 지류라는 공격을 받는다.

진화심리학자들은 행동유전학과 유사한 학문으로 보는 견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행동유전학은 유전이 인간 행동의 많은 유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전제한다. 개인행동의 차이가 유전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진화심리학에서는 유전자가 모든 인간에 보편적인 행동의 기초를 이루고 있지만 환경이 개인행동의 차이에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따라서 진화심리학을 행동유전학과 한 묶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진화심리학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은 진화심리학을 사회생물학의 일개 지류로 격하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사회생물학이 우생학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상기시킨다. 1972년 미국 우생학회가 만장일치로 거의 60년간 사용한 학회명을 사회생물학연구학회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환경보다는 유전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한다고 전제하는 우생학이 한때 미국에서 인기를 누리던 시절에는 지능검사를 실시해 강제 불임을 정당화할 정도였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사회생물학 역시 우생학처럼 생물학적 결정론을 신봉하고 마음의 역할을 무시하기 때문에 마음을 강조하는 진화심리학을 사회생물학의 한 분과 또는 후계 학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국내 필자가 쓴 최초의 진화심리학 책은 언제쯤 나오려나. **▶▶**